



중국 불법어선 단속 순직 박경조 경위 4주기

목포에 살신성인 정신 담은 흥상 세운다

故 박경조 경위

신안군 제작비 지원...목포해경 모금 운동도

4년 전 오늘(25일)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서해에서 어족자원과 해상 주권을 사수하다 순직한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흥상으로 부활한다.

해양경찰이 그를 떠나보내며 '잊지 않겠다'라던 약속은 4년 만에 지키게 됐다.

강성희 목포해경 서장과 박우랑(사진 왼쪽) 신안군수는 박경조 경위 4주기인 25일 오전 신안군청에서 박경조 경위 흥상 제작비 지정 기탁식을 열었다.

박 경위가 순직한 해역을 담당하는 신안군이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지키다 산화한 그의 송고한 넋을 기리고 해양경찰의 살신성인 정신을 승화하기 위해 흥상 제작비를 지원한다.

박우랑 군수는 "조기, 흥어 등이 많이 나는 신안 황금 해역을 불법 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지키다 숨진 박 경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목포해경은 신안군의 지원과 별도로 모금 운동을 벌여 흥상 제작에 직원들의 마음도 담을 예정이다.

흥상은 중국어선 단속 경비정이 입출항하는 전용부두 또는 목포해경 청사 안 중 한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 경위는 지난 2008년 25일 오후 7시 4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2척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중국선원이 휴두를 둔 기에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 순직했다.

박 경위는 사고 당일 48세의 단속번원으로서는 많은 나이였지만 고속 단정을 총지휘하는 팀장으로 선봉에 섰다.

그는 사고 당일도 짧은 둘째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중국어선에 오르다 쇠파이프, 삼, 동등이 등을 휴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선원의 둔기에 맞았다.

1990년 5월 순경으로 첫발을 디딘 박



경위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공로만으로 네 차례 해양경찰청장을 받았다.

김수현 서해지방경찰청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박 경위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어민들의 뜻을 담아 신안군이 흥상 제작비를 지원해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조선대 총동창회장에 이정남 前 광주시의사회장



를 이었다.

조선대 총동창회장은 일반적으로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으나, 이번에는 3명의 후보가 나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

19대 조선대 총동창회장 선거에서 이정남 후보는 총 57표 중 32표를 얻어 총동창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양형일 후보, 황하택 후보 등이 뒤

이정남(신경정신과 원장·사진) 전 광주시의사회장이 최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24일 광주 힐링크 호텔에서 열린 제

(주)그린알로에, 소년소녀가장 성금·선물 기탁



(주)그린알로에 박원민 부사장과 소정미 상무는 지난 2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를 방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600만원과 44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빛고을희망1004나눔한마당'



광주사회복지협의회와 '1004전문지역사회봉사단'은 최근 광주시 동구 용연동 일대 미들에서 '빛고을희망1004나눔한마당' 연합봉사를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평동농협 이·미용 봉사활동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주경찰, 새터민·다문화가정에 생필품



나주경찰서(서장 이명호)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장경일)는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20여명을 초청해 쌀·라면 등(150만원 상당) 생필품을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모집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복·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학을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페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희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풍이나 치

홍재기 공군 1전비 단장, 송광중서 나라사랑 안보교육



홍재기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 단장은 지난 24일 송광중을 찾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나라사랑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민주화운동 주역 박관현 열사 30주기 추모

내달 5일 전남대 법과대학 앞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박관현(사진) 열사 30주기 추모행사가 다음달 5일 오후 2시 박 열사의 묘소인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앞에서 열린다.

이어 오후 2시30분 전남대 광주은행홀에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창언 박사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는 박관현 열사 추모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오후 4시30분엔 전남대학교 응봉홀에서 '새벽기관차 박관현 평전'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12일 오전 11시엔 국립 5·18 묘역에서 30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된다.

박관현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으로 활동하다가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자 서울 등지에서 은신하다 1982년 4월 5일 체포돼 내란죄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열사는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40여일 간의 육중 단식 끝에 10월 12일 새벽, 전남대 병원에서 사망했다.

오제일 추모행사 추진위원회 심입위원장은 25일 "30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5·18 정신계승투쟁과 관련된 민족·민주열사들에게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고 적정한 예우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산구 비아동 진입로 아름다운 꽃길 단장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동네 진입로가 아름다운 꽃길로 단장됐어요" 광주 광산구 비아동 주민들이 '주민 참여형 제안사업'으로 '비아동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 최근 깔끔히 마무리했다.

입구에 금지한 표지석을 비롯해 55m 길이의 진입로에 450여 그루의 철쭉을 식재하는 등 꽃길로 단장한 주변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광산구 비아동의 경우 그동안 광산IC, 첨단단지, 비아중앙로가 연결된 진입로를 왕래하는 차량들이 버린 쓰레기로 주변이 항상 불결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비아동의 얼굴인 첫 관문을 이렇게 방지할 수는 없다며 지난 5월 진입로를 꽃길로 단장하기 위한 주민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과정에 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광산구 참여형 제안사업'으로 공모, 선정되는 까지까지 달성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보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초청 한가위 잔치

담양소방서 노인복지센터 방문 위문품 전달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양을 만성리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 '양지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보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초청 한가위 잔치

보성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윤동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근 관내 장애인 2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잔치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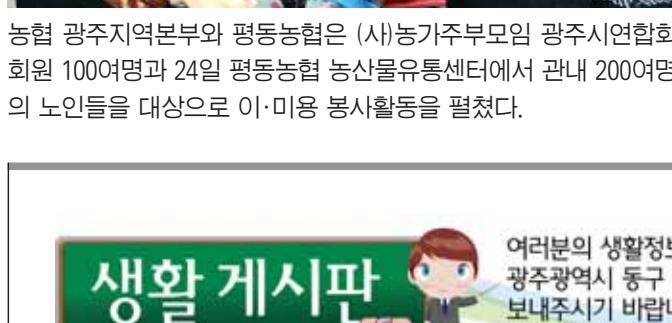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aT광주·전남지사 복지시설 5곳에 온누리상품권

보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초청 한가위 잔치

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는 추석을 맞아 최근 영암·사랑의 집 등 도내 5개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25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 100여명과 24일 평동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은 (